

소니의 PS3용 대작 3D 게임 '언차티드 3' , 3D 게임 시장에 '아바타' 열풍 재현할까?

2011. 6. 13

Overview

소니(Sony)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막된 세계 최대의 게임 전시회 'E3 2011'에서 자사의 첫 PS3용 3D 게임 '언차티드 3(Uncharted 3: Drake's Deception)'을 공개함에 따라 게임업계의 3D 입체 영상 기술 도입에 신호탄을 울릴 것으로 전망된다.

Briefing

소니, E3 2011에서 첫 PS3용 3D 게임 '언차티드 3' 공개

- o 소니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막된 세계 최대의 게임 전시회 'E3 2011¹⁾'에서 2010년 GOTY(Game of The Year)를 수상한 '언차티드2'의 후속작이자 자사의 첫 PS3 전용 3D 게임 '언차티드 3'을 공개했음
 - 실제 시연 버전으로 공개된 '언차티드 3'은 사실적인 그래픽과 높은 몰입감, 액션, 슈팅이 더해진 게임성으로 게이머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오는 11월 1일 출시예정임
 - '언차티드 3'의 멀티플레이는 전작보다 훨씬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류탄 등의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는 메달 시스템, 캐릭터의 전력 질주, 8명의 플레이어 중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1명을 가리는 프리 포 올(Free for All) 모드와 새로운 데스 매치 모드, 화면 분할을 통한 2인 동시 플레이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 '언차티드 3'을 개발한 소니 산하 게임 스튜디오 너티 독(Naughty Dog)의 저스틴 리치몬드(Justin Richmond) 게임 디렉터는 "액션 장면 프레임을 2번씩 렌더링(Rendering)했다"고 밝히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 이중 렌더링 작업의 결과로 3D로 게임을 하지 않는 게이머도 분할 화면의 멀티 플레이어 액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함
 - 또한 '언차티드 3'의 멀티플레이 게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 사이트 페이스북(Facebook)과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와의 연계도 이루어짐

1) 2011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LA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E3 2011'에서 소니는 '리얼 3D'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PS3용 게임 중 상당수를 3D로 발표함

Figure 1

소니의 PS3용 3D 게임 '언차티드 3' 스크린샷



자료: Uncharted 3 공식홈페이지

- '언차티드' 시리즈의 특징 중 하나는 영화와 같이 실감나는 연출로, 특히 '언차티드 3'에서는 캐릭터의 감정 표현을 위해 정교한 모션캡처 시스템을 차용, 게임 배경에는 3D 입체 영상을 차용해 실재감과 역동성을 더했음
- 너티독의 제이콥 민코프(Jacob Minkoff) 수석 디자이너는 "영화사들의 경우 수년간의 3D 영화 제작 경험을 통해 많은 노하우를 확보한 반면 비디오 게임 업계는 이제 막 3D 영역에 발을 들여놓은 상태"라며 정글이나 산, 사막과 같은 지형을 비롯해 전투 장면 등을 3D로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할리우드 영화사로부터 많은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짐
- 시장조사업체 일렉트로닉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앤 리서치(Electronic Entertainment Design and Research, EEDAR)의 제시 디브니히(Jesse Divnich) 부회장은 3D 영화 시장에서 제임스 카메론(James Cameron) 감독의 '아바타(Avatar)'가 일으켰던 열풍을 소니의 '언차티드 3'이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함

Analysis

3D 입체 영상 기술은 정 자세를 유지해야 하고 높은 집중력을 요구하는 단점이 있지만, 이 때문에 게임과 같이 높은 몰입감을 유발하는 콘텐츠에는 오히려 최적화된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3D 입체 게임은 높은 몰입감과 실감을 제공함으로써 게임 플레이 경험을 '가상현실 체험'과 유사한 영역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3D 게임은 영화, 방송 시장에서의 3D 확산을 위한 촉매제로도 주목받고 있다.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아메리카(Sony Computer Entertainment America)의 하드웨어 마케팅 담당자인 존 콜러(John Koller)는

PS3 게임기 소유자의 78%가 HDTV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이 소니의 브라비아(Bravia) 같은 3D TV로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다음 목표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3D TV를 이용해 소비할 수 있는 장르 중에서도 '언차티드 3'와 같은 대작 게임이 킬러 콘텐츠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Source

1. Hollywood Reporter, 'E3: Analyst Believes Sony's 'Uncharted 3' Could Be the 'Avatar' of 3D Games', 2011. 6. 6
<http://www.hollywoodreporter.com/news/e3-analyst-believes-sonys-uncharted-195182>